# "연령에 맞춰 좋은 책만 모았어요"

## 어린이책 전문서점 '초방'

어린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맞이하는 어린이책 전문서점이 문을 열어 화제다. 해가 갈수록 '무슨 날'들이 갖는 의미가 퇴색해가는 데는 어린이날도 예외가 아닌 듯 단순히 선물이나 듬뿍 받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만의 책방이 생겼다는 것은 선물치고는 아주 특별한 선물일 것 같다.

연세대 동문을 나와 도로변에 닿기 전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봉원사 방향으로 20m쯤 올라가다 보면 붉은 벽돌색 4층 건물이 나오는데, 그 1층이 어린이들만의 서점으로는 유일한 책방으로 문을 연 '초방'이다. 커다란 유리창에 써붙여놓은 서점이름부터가 앙증맞음이 넘쳐흐르는데, 안으로 들어서면 첫눈에 여느 서점의 어린이 코너와는 확연하게 틀림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서가에 붙여놓은 연령별 분류표시. 코너별로 유아용, 국민학교 저학년, 국민학교 고학년책이 꽂혀있고, 유아용의 경우 0~2세, 3~4세, 5~6세 등으로 독자구분을 해놓은 것이 특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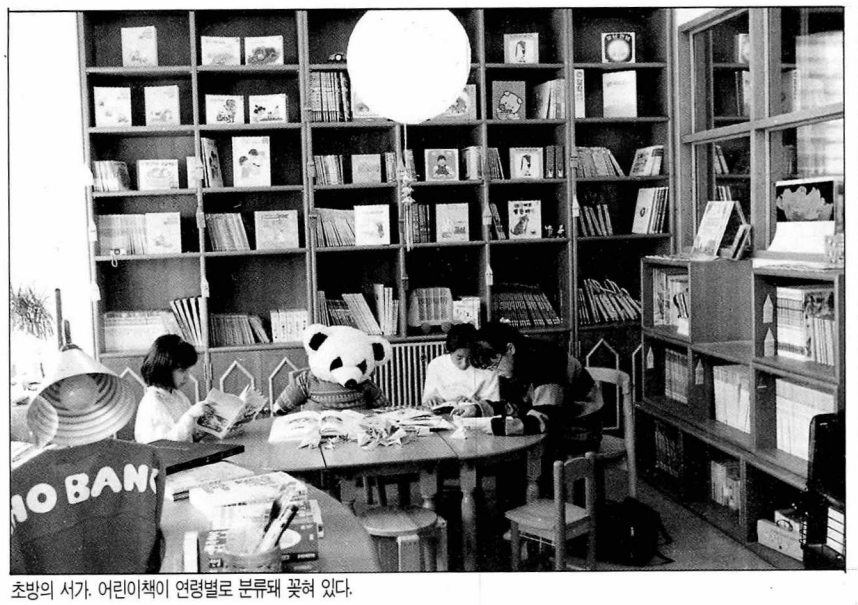
"그림책은 아주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수 있을 때까지 다함께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게 어려운데, 요즘은 출판사에서도 그림책을 낼 때 해당연령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 책을 고르는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코너별로 일일이 연령표시를 해두었어요."

주인 신경숙(32)씨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각 벽면에는 전집물, 과학도서, 교육용 비디오와 테이프 등 연령과는 상관없는 분야별 도서들도 각각 코너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색종이접기 소도구들과 약간의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의 필기기구도 함께 비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문 입구에는 국민학교 고학년용 단행본들이 주류를 이루고 길쭉하게 생긴 서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연령이 낮아져 맨 안쪽 유아용 서가 아래에는 큼직한 원탁과 나무의자들도 마련돼 있어 어린들이 책을 읽으며 천천히 고를 수 있게 배려해 놓았다.

"서점을 경영해보고 싶었던 것은 대학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어린이 책방으로 구체화된 것은 미국에서 생활한 2년여간의 체험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신씨가 '꼭 해보고 싶다'고 결심을 다질 만큼 강렬한 체험은 미국의 어딜 가나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큰 사회적 분위기는 둘째치고라도 쌍동이 두 딸과 곧잘 찾던 공립도서관에서 본 어린이책의 수준높은 그림과 내용, 그리고 다양함을 접하고 느낀 놀라움이 영향이 컸다.

특히, 어린이 그림책이라 하면 단순한 그림에 유치한 내용일 거란 자신의 통념을 깨는 매우 사실적이고 깊은 내용의 책들이 부러울 만큼 많았는데, 이것이 "좋은 어린이책은 말 못하는 어린이에서부터 어른들에까지도 감동을 주는 것"이란 생각을 갖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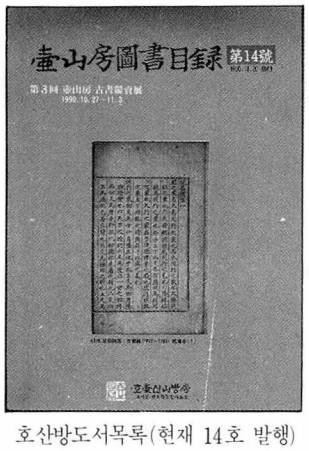

초방의 서가. 어린이책이 연령별로 분류돼 꽂혀 있다.

귀국후 1년여간 구체화된 생각을 실행에 옮기면서 신씨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교사협의회, YWCA어린이도서회 등의 조언을 참고하고 국민학교도서관에서 일일이 목록을 작성해, 지난해 12월 25일 문을 열었다. 아직 서가가 빼곡히 채워지진 않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돼 전체 어린이책 종수의 20퍼센트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의 안목으로 보아 확실하지 않는 책은 아예 갖다놓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창 인기를 끈다는 베스트셀러는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잡지나 참고서 학습서는 취급 않기로 못박아 두고 있다.

10평 남짓한 크기지만 전문서점인만큼 여기에 기울이는 신씨의 노력은 각별하다. 지난 3월초 세계 각국의 아동도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탈리아 '볼로냐 아동도서전시회'에 다녀오면서 "다른 나라 어린이에게도 자랑할 만한 우리 그림책이 많이 나와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왔다. 그래서 지하 45평의 공간을 갤러리로 만들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자유로운 발표공간이 되게 함과 동시에 출판사들에게 필요한 작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혜옥 기자


호산방은 30년 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호산방은
고서의 공정한 평가를
꾀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산화작업에 의한 호산방도서목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호산방도서목록(현재 14호 발행)

■ 2000년대 고서문화를 이끌어 갈 분을 찾습니다

서지학이나 자료조사에 관심있는 분으로
특히 영어에 자신있는 분이라면 좋습니다.

- 자 격 : 학력, 경력, 나이 관계 없음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사진첨부) 1통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자기소개서(200자 원고지 10매 이상)
- 접수마감 : 1991년 5월 18일까지(우편접수)
- 전형방법 :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 이력서 상단에 연락전화번호 명기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壺山房 호산방
고서점 · 한국학문헌자료실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한일빌딩 아케이드 7호 전화 : 722-8029, 723-7431 팩시 : 722-6642